

2026.03.13.(금) 증권사리포트 "아크릴, 엔비디아 GPU 26만 장의 직접적인 수혜주"

✦ 최근 발행한 증권사리포트 중 투자자에게 도움되는 리포트를 요약하여 제공합니다. 전체 내용은 증권사 홈페이지(링크삽입)에서 확인해주세요.

아크릴

엔비디아 GPU 26만 장의 직접적인 수혜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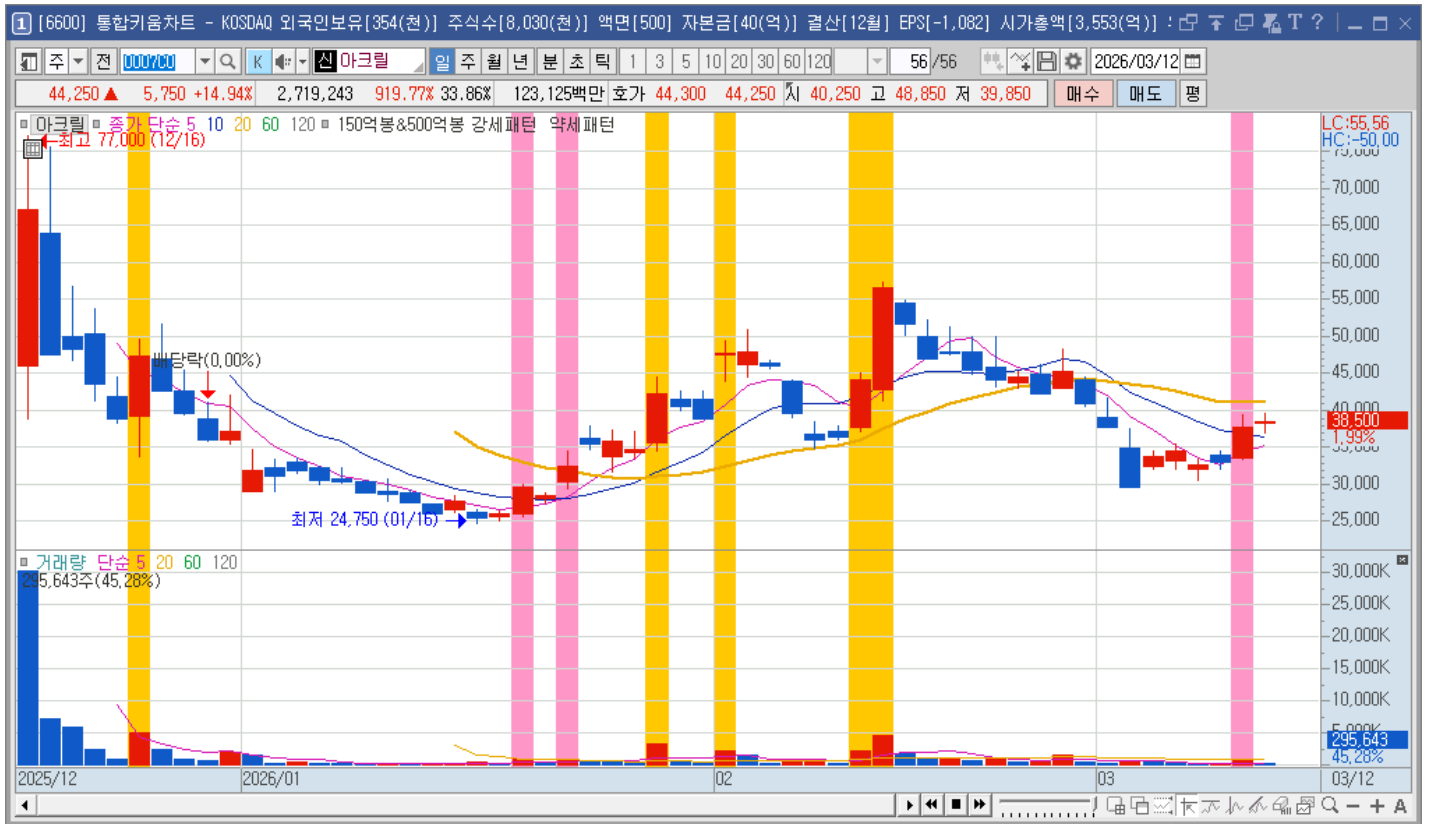
[출처] 신한투자증권 최승환 애널리스트

국내 유일 풀스택 AX 인프라 기술력 기반의 독보적 성장세 전망

신한투자증권은 아크릴에 대해 국내 GPU 도입 확대에 따른 독점적인 수혜가 가능하며 올해 가장 주목해야 할 AX 대전환 수혜주라고 분석했다. 최승환 신한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엔비디아가 국내에 공급할 예정인 26만 장 규모의 대형 프로젝트로 인해 1조 원 이상의 수주 기회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했다. 아크릴의 핵심 솔루션인 GPU베이스는 특정 하드웨어에 종속되지 않는 범용성을 바탕으로 이더넷 환경에서 인피니밴드를 대체할 수 있는 독보적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2026년 매출액 304억 원 달성과 함께 영업이익 49억 원으로 흑자 전환하며 본격적인 실적 성장이 이뤄질 것으로 평가하며 투자의견 중립을 제시했다.

12월 결산	매출액 (십억원)	영업이익 (십억원)	지배순이익 (십억원)	PER (배)	ROE (%)	PBR (배)	EV/EBITDA (배)	DY (%)
2023	14.8	(0.5)	(5.0)	-	28.5	-	-	-
2024	13.4	(2.4)	(5.5)	-	-	-	-	-
2025F	13.3	(2.3)	(2.8)	-	-	16.7	-	-
2026F	30.4	4.9	6.0	51.8	28.6	13.0	47.5	-
2027F	44.9	13.3	12.4	25.0	41.1	8.5	19.0	-

자료: 회사 자료, 신한투자증권



RF머트리얼즈

광모듈 수요가 끝이 없다

[출처] 하나증권 김홍식 애널리스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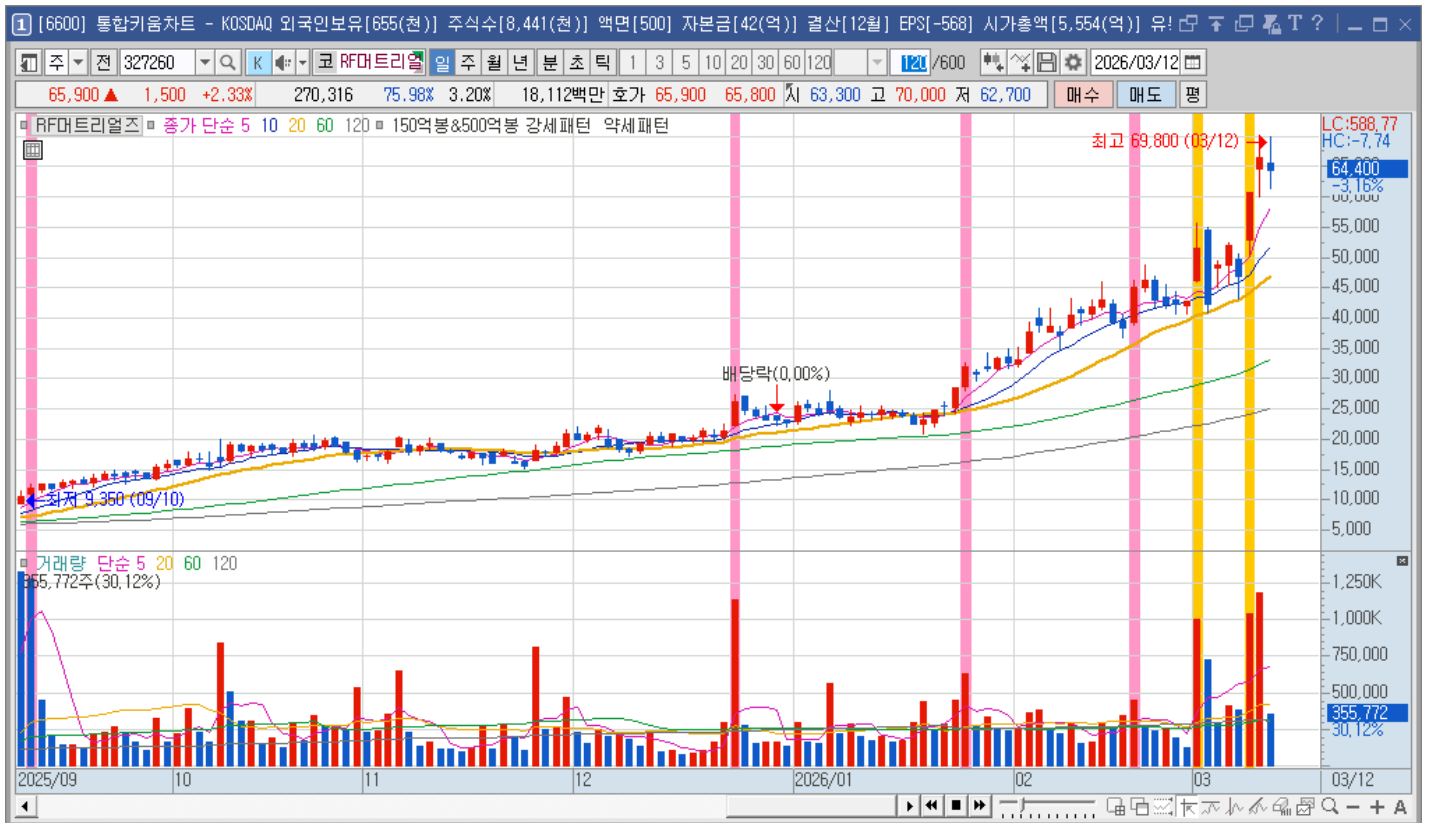
CPO 기술 전환과 글로벌 공급 부족에 따른 강력한 수혜 전망

하나증권은 RF머트리얼즈에 대해 AI로 인한 트래픽 폭증으로 서버 내 구리선이 광연결(CPO)로 빠르게 대체됨에 따라 직접적인 수혜를 입을 것으로 분석했다. 김홍식 하나증권 애널리스트는 구리선의 물리적 한계로 인해 AI 서버 시장에서 CPO 채택은 필수적이며, 미국과 유럽 내 중국 업체 퇴출로 인한 공급 부족 상황이 실적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최근 설비 확충을 바탕으로 2026년 매출액 927억 원, 영업이익 145억 원을 기록하는 등 가파른 성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평가하며 투자의견 매수와 목표주가 80,000원을 유지했다.

Financial Data

(십억원, %, 배, 원)

투자지표	2023	2024	2025F	2026F
매출액	47.9	44.5	63.9	92.7
영업이익	(0.0)	(1.5)	7.3	14.5
세전이익	0.4	(7.5)	8.2	16.4
순이익	(0.7)	(4.8)	7.0	12.8
EPS	(80)	(568)	833	1,515
증감율	적전	적지	흑전	81.87
PER	(133.00)	(8.41)	27.43	42.51
PBR	2.02	0.94	3.80	8.56
EV/EBITDA	25.76	19.96	17.24	29.78
ROE	(1.53)	(11.22)	15.65	23.20
BPS	5,259	5,102	6,009	7,519
DPS	0	0	0	0





피에이치에이

자기주식 7.0% 보유 중

[출처] 하나증권 송선재 애널리스트

미국·인도 신공장 가동을 통한 외형 성장 및 주주 환원 기대

하나증권은 피에이치에이에 대해 2025년 4분기 실적이 예상치를 상회했으며, 미국 및 인도 신공장 확대를 통해 2030년까지 꾸준한 성장이 기대된다고 전망했다. 송선재 하나증권 애널리스트는 미국 조지아 공장의 매출 기여와 리쇼어링 정책에 따른 현지 고객 확보가 수익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했다. 또한, 현재 시가총액의 75%에 달하는 풍부한 순현금 보유와 상법 개정에 따른 7% 수준의 자기주식 소각 가능성 등 자산 가치와 주주 환원 매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투자이건 매수와 목표주가 15,000원을 유지했다.

Financial Data

(십억원, %, 배, 원)

투자지표	2023	2024	2025F	2026F
매출액	1,134.6	1,152.9	1,200.7	1,263.3
영업이익	48.3	51.5	48.4	51.0
세전이익	69.3	83.3	54.6	67.4
순이익	61.5	61.9	46.3	51.0
EPS	2,929	2,950	2,204	2,427
증감율	117.61	0.72	(25.29)	10.12
PER	3.40	3.41	5.33	5.00
PBR	0.29	0.26	0.29	0.28
EV/EBITDA	0.38	0.35	0.27	0.12
ROE	8.82	8.14	5.63	5.88
BPS	34,733	38,706	40,837	42,892
DPS	250	350	400	400



헥토이노베이션

사업다변화에 성공, 역대 최대 매출 달성 지속 전망

[출처] 유진투자증권 박종선 애널리스트

7개 분기 연속 최대 매출 갱신 및 전 사업 부문의 고른 성장

유진투자증권은 헥토이노베이션에 대해 모든 사업 부문이 성장세를 유지하며 7개 분기 연속 분기 최대 매출액을 갱신하는 등 견조한 성장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박종선 유진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IT정보서비스의 고객 다변화, 핀테크 부문의 글로벌 가맹점 확대, 헬스케어 부문의 신규 브랜드 런칭을 통해 2026년 1분기에는 분기 매출 1,000억 원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했다. 2026년 연간 실적 또한 매출액 4,373

억 원, 영업이익 629억 원으로 대폭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며, 밸류에이션 매력을 반영해 투자의견 매수를 유지하고 목표주가를 28,000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12월 결산(삼역원)	2024A	2025E	2026E
매출액	3195	3758	4373
영업이익	489	502	629
세전손익	465	503	651
당기순이익	348	366	496
EPS(원)	2,126	2,326	3,082
증감률(%)	236	94	325
PER(배)	58	90	68
ROE(%)	146	144	173
PBR(배)	0.8	1.3	1.1
EV/EBITDA(배)	na	na	na





빅텍 단순 테마 아닌 구조적 성장 가능성을 확인하다

[출처] SK증권 나승두 애널리스트

수주잔고 급증과 K-방산 수출 확대에 따른 본격적 이익 국면 진입

SK증권은 빅텍에 대해 과거 북한 도발 테마주라는 인식을 벗어나 전자전 시스템 및 특수 전원 장치 분야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구조적 성장 국면에 진입했다고 분석했다. 나승두 SK증권 애널리스트는 2025년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141% 증가한 44억 원을 기록했으며, 수주잔고가 2022년 대비 3배 이상 급증한 1,700억 원을 돌파하며 실적 가시성이 매우 높아졌다고 평가했다. 특히 K-방산의 주요 수출 품목인 유도무기체계와 레이다 등에 핵심 부품을 공급하고 있어 대한민국 방산 수출 성장의 직접적인 수혜를 입을 것으로 전망하며 투자 의견 매수를 제시했다.

영업실적 및 투자지표

구분	단위	2022	2023	2024
매출액	억원	744	549	715
영업이익	억원	17	-43	18
순이익(지배주주)	억원	-2	-42	38
EPS	원	-81	-146	133
PER	배	N/A	N/A	30.8
PBR	배	2.7	3.4	3.4
EV/EBITDA	배	32.1	N/A	7.5
ROE	%	-0.4	-15.1	6.7
배당성향	%	0.0	0.0	22.5

